

韓國中東學會論叢 第30-1號
韓國中東學會, 2009, 169-215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조희선**

차 례

- I. 서론
- II. 아랍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 혼인동화
- III. 아랍 이주 무슬림들의 정착: 구조적 동화
- IV. 아랍 이주 무슬림들의 문화적응
- V. 결론

*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A00062)

**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Abstract>

Marriage, Settlement and Acculturation of the Arab Muslim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Cho, Hee-Sun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Marriage, Settlement and Acculturation of the Arab Muslim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as the second year subject of the project 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of Immigrant Muslims in Korean Society: Coexisting with Koslims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how Arab immigrants got married to Korean people, how they could settle down in Korean society, and what kind of acculturation strategies they adopt between Korean culture and their own. As for their marriage to Koreans and structural settlement are classified respectively by marital and structural assimilation based on Yinger and Gordon's classification of assimilations. Acculturation strategies of the immigrant Muslims were analyzed out upon Berry's theory which divides them into four types - assimilation, integration,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 according to immigrants' attitude toward their own culture and the culture of new society.

The number of intermarriage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 Arabs in Korean society can be counted by the number of Arab immigrants who are naturalized in Korea, newly acquired Korean citizenship, and hold F-2-1 visa.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year 2007, the number of Arab immigrants who were

naturalized in Korea or acquired Korean citizenship was only 54, and the number of those holding F-2-1 visa, which is considered as residence qualification for Korean citizens' foreign spouses, was 79.

The research method of this paper relied mainly on semi-structured interviews, which contain questions about personal character, marriage process, troubles and solutions regarding marital life, relationship with Koreans, and cultural attitudes. The interviewees include 7 Arab men, and 3 Arab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people. The Arabic language was used for interviews, in order to make the interviewees feel comfortable to say frankly about their lifestyle in Korea.

Key Words: Immigrant Muslim, Immigrant Arab Muslim, Acculturation, Intermarriage, Islam, Marriage Assimilation, Structural Assimilation

I. 서론

1.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목적

국제결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화주의적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다양한 차원의 과정과 변화를 거쳐 새로 이주한 그룹들이 점차적으로 주류사회의 구성원들과 유사해진다는 것이다. Yinger는 동화(assimilation)란 네 가지 하위과정, 즉 문화적응(acculturation), 통합(integration), 융합(amalgamation), 동일시(identification)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문화적응은 문화적 동화과정, 통합은 구조적 동화과정, 융합은 생물학적 동화과정, 동일시는 정신적 동화과정을 각각 의미한다는 것이다.(Kulczycki & Lobo 2002, 203) 즉 동화라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동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져, 예컨대 구조적 동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문화적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Yinger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동화주의 학자인 Gordon 또한 문화 혹은 행동적(cultural or behavioral) 동화, 구조적(structural) 동화, 혼인(marital) 동화, 태도적 상호(attitudinal reciprocal) 동화, 행동적 상호(behavioral reciprocal) 동화, 시민적(civil) 동화, 동일시(identificational) 동화로 동화과정을 분류하여 설명하였다.(Sam 2006, 18)

사실 ‘동화’나 ‘문화적응’과 같은 용어들은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Yinger나 Gordon은 문화적응을 동화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여 ‘문화적 패턴을 수용국의 문화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Berry는 새로운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수용할 것인가 혹은 거부할 것인가, 자기 고유문화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버릴 것인가에 대한 태도에 근거하여 문화적응을 네 가지 전략, 즉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로 설명하였다. Portes와 Rumbau는 동화의 원래 개념을 순화시키기 위해 ‘분화된 동화’(segmented assimil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편, Teske와 Nelson은 여러 차원에서 달라질 수 있는 두 개의 분리된 과정으로

서 문화적응과 동화를 인식하고, 문화적응은 쌍방향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동화는 일방적인 문화적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am 2006. 12)

Redfield는 문화적응을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함으로써 한 그룹 혹은 두 그룹 모두가 자기 고유의 문화적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Redfield의 정의는 문화적응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고전적인 정의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응이 한 집단의 문화가 다른 집단의 문화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로벌 이민의 증가와 더불어 이제 많은 국가들은 이주자들을 위한 정착정책으로 동화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두 문화공존’(biculturalism), ‘다문화’(multiculturalism), ‘통합’(integration), ‘재사회화’(re-socialization), ‘민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다. 이러한 용어들은 ‘문화적응’의 대체 개념 혹은 호환성이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Sam 2006, 11-12)

이렇듯 동화와 문화적응에 대한 용어와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사용되거나 해석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acculturation'이라는 용어만 해도 ‘문화변이’, ‘문화적응’, ‘문화접변’, ‘문화변용’ 등의 다양한 우리말 용어로 번역되어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정신적, 문화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는 ‘문화변이’를 문화적 영역에 국한된 개념으로는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의 문화변이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 속 코스림(Koslim)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하여”라는 대주제하에 진행된 본 연구는 한국 여성과 혼인한 아랍계 남성이주자, 혹은 한국남성과 혼인한 아랍계 여성이주자들의 문화변이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의 문화변이는 Yinger나 Gordon이 지적한 대로 동화의 여러 양상 가운데 혼인동화와 구조적 동화로 구별하여 연구하였으며, Berry가 주창한 고유문화의 유지와 새로운 문화의 수용 여부에 따른 대응 전략을 기준으로 이들의 문화적응을 연구하였다. 즉 한국인과 혼인한 아랍계 이주자들이 어떻게 혼인을 하였으며 또 어떻게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정착하는지, 그리고 우리문화와 고유문화 사이에서 어떠한 문화적응

전략을 해 나아가는가를 탐구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국제결혼(intermarriage)의 비율은 전체결혼건수에 대해 2003년 8.4%, 2004년 11.4%, 2005년 13.6%, 2006년 11.9%, 2007년 11.1%에 달하고 있다.¹⁾ 1990년대 초까지 국제결혼이란 한국인 여성이 주로 하는 것이었다. 1992년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는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의 건수를 능가하기 시작하였다.(김보라 2007, 7)

아랍계 무슬림들의 국제결혼 수치는 이들의 귀화, 국적취득 및 F-2-1 비자²⁾의 소지여부로 파악해 볼 수 있다.³⁾ 아랍계 무슬림의 귀화와 국적취득의 경우 2005년에는 43명, 2006년에는 47명, 2007년에는 54명으로 그들 가운데 모로코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결혼동거비자 F-2-1을 소지한 아랍계 이주자의 경우는 2002년 23명, 2003년 46명, 2004년 58명, 2005년 66명, 2006년 76명, 2007년 79명으로 해마다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1) 200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 F-2-1(거주비자) 비자는 한국인과 혼인한 이에게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다. 이는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본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로 인정서나 번호를 보내면, 재외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함으로써 발급되므로, 혼인 시에 부여받을 수 있는 최초의 사증이다. 이 비자의 소지자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F-2 비자를 소지한 자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는 한국귀화자(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에 해당)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는 1) '법률상' 혼인의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거나 2) 혼인 후 3년 이상, 그 중 1년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시에 3천만 원 정도의 재산증명이 필요하다.(김보라 2007, 15-16)

3) 방문동거비자인 F-1-3 비자를 소지한 사람 가운데 결혼이민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모두 결혼이민자일 수는 없다. 아랍인들 가운데 F-1-3를 보유한 사람은 2002년 10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2명, 2004-2007년까지 1명에 불과하여 거의 무시할 정도의 수치로 나타났다.

4) 2002-2007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5		2006		2007	
	귀화	국적 취득	귀화	국적 취득	귀화	국적 취득
요르단	3	6	3	6	3	6
이라크	1	0	1	0	1	0
레바논	0	4	0	4	0	4
예멘	·	·	·	·	1	0
시리아	3	1	3	1	3	1
사우디	0	1	0	1	0	1
쿠웨이트	0	0	0	0	0	0
카타르	0	0	0	0	0	0
모로코	13	3	17	3	21	3
이집트	1	6	1	6	1	6
코모로	0	0	0	0	0	0
수단	1	0	1	0	1	0
리비아					0	2
소계	22	21	26	21	31	23
총계	43		47		54	

표 1 귀화 및 국적 취득 현황

무슬림 집단에 비해서도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귀화나 국적취득과 마찬가지로 결혼동거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모로코인들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이집트인들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 일반적으로 ‘남성은 노동이주’, ‘여성은 결혼이주’

라는 이주의 성별구분이 극명해지고 있으나 아랍계의 경우에는 혼인이주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다는 사실이 다른 이주 집단과 구별된다.

한편, 한국체류 아랍계 이주자는 2006년에는 2,154명, 2007년에는 2,343명에 달하고 있다. 장단기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에서 아랍계 불법체류자는 2006년 674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582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불법취업 우려 입국 불허 현황에서는 아랍계 총 341명 가운데 이집트인이 315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 정부당국이 이집트인의 불법취업을 우려하여 이들의 입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한국여성과의 혼인을 통한 합법적인 체류자격의 획득을 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요르단	남	3	2	3	5
	여	0	0	0	0	0	0
이라크	남	1	1	1	1	3	3
	여	0	0	0	1	0	0
시리아	남	1	2	1	0	0	0
	여	0	0	0	1	2	2
레바논	남	0	0	0	0	1	1
	여	1	1	1	1	1	0
쿠웨이트	남	0	0		0	0	0
	여	0	0		0	0	0
팔레스타인	남	0	0	0	2	2	2
	여	0	0	0	0	0	0
예멘	남	0	0	0	0	1	1
	여	0	0	2	2	2	1
수단	남	0	0	0	0	1	1
	여	0	0	0	0	0	0
모로코	남	6	23	23	22	23	23
	여	7	13	15	12	11	13
이집트	남	1	0	4	13	16	19
	여	1	2	2	2	2	2
리비아	남	1	1	1	1	2	2
	여	0	0	0	0	0	0
알제리	남	1	1	4	3	3	3
	여	0	0	0	0	0	0
튀니지	남	0	0	1	0	1	1
	여	0	0	0	0	0	0
소계	남	14	30	38	47	58	61
	여	9	16	20	19	18	18
	총	23	46	58	66	76	79

표 2 F-2-1 비자 소지자 현황

하고 있다. 아랍계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6%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여성과의 혼인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희선 2008, 54) 아랍세계의 문화적인 특성상 여성들이 결혼이주를 하는 것은 다른 문화권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아랍계 남성노동자들이 한국정착을 위해 한국여성들과 혼인하는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은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s)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미 정해놓은 최소한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자유해답식 질문(open ended question)을 통해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대화하는 과정에 생성된 새로운 질문들을 다시 던지는 방식으로 면접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였다.(Dicicco-Bloom & Crabtree 2006, 315) 면접의 내용은 첫째, 성별, 연령, 국적(배우자의 국적), 자녀의 유무, 거주지, 학력(배우자의 학력), 직업(배우자의 직업), 임금(배우자의 임금), 입국년도와 목적을 묻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둘째, 혼인기간, 배우자와의 만남, 혼인결정 요인, 양가 허락 여부, 혼인식 방법 등의 혼인과정, 셋째, 행동적, 전통적, 관습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 원인과 갈등해결 방법, 넷째, 이웃, 친구,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및 이들의 시각, 넷째, 한국어와 한국문화, 생활방식에 대한 수용도 및 수용태도, 고유의 전통 문화에 대한 유지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면접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여성과 혼인한 아랍계 남성이주자 7명, 한국남성과 혼인한 아랍계 여성이주자 3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다.

사례	성별	국적	연령	입국연도	결혼연도	혼인기간	비고
M1	남	수단	47세	1989	1991	18년	
M2	남	요르단	29세	2005	2006	3년	
M3	남	시리아	42세	1995	2004	5년	국적취득
M4	남	요르단	39세	1999	2004	5년	
M5	남	이집트	39세	2006	1999	10년	
M6	남	이집트	33세	2006	2008	1년	G-1 비자
M7	남	모로코	35세	2005	2007	2년	G-1 비자
F1	여	이라크	55세	1983 1997	1984	25년	국적취득
F2	여	모로코	39세	1996	1995	14년	국적취득
F3	여	모로코	28세	2001	2004	5년	

면접 참여자는 평소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있던 지인들,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 혹은 주변의 한국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면접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인천, 금정, 성남지역의 가정, 직장, 혹은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길게는 2시간, 짧게는 1시간정도이며, 면접에 사용된 언어는 주로 아랍어였다. 아랍어 사용은 평소에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참여자도 솔직하게 면접에 응할 수 있는 좋은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모든 면접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전사하였다.

면접을 통한 참여자의 구술 내용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가 속한 보편적인 문화를 드러내는 것이다.(최영신 1999, 4) 즉 개인이 문화나 사회나 역사를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고 할 때에는 개인의 대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독특한 존재인 동시에 나름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최영신 1999, 188)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과 혼인한 아랍계 이주 무슬림들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아랍인들, 혹은 무슬림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혼인하고 정착하고, 문화적응을 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일반성을 구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아랍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 혼인동화

Gordon은 국제결혼(intermarriage)이 이주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최초의 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국제결혼이 두 그룹간이 통합되는지, 혹은 두 그룹간의 사회적인 거리를 좁혔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언급하였다.(Morgan 2009, 15) 그는 새로운 그룹이 '완벽하고 자유롭게' 주류그룹의 구성원과 혼인할 경우 모든 형태의 사회적, 문화적 동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룹간의 오래된 인종적, 사회적 분화가 사라진다는 것이다.(Bugelski 1961, 152-153) 그러나 Gordon의 이러한 동화이론은 많은 사회에서 오래된 민족 그룹도 여전히 족내혼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에서의 동화 혹은 통합을 위해서는 주류사회 구성원과의 혼인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이 될 수는 있다. 혼인하지 않은, 혹은 족내혼을 한 이주자들에 비해 주류사회 구성원과 혼인한 사람들은 현지 네트워크의 확보라는 점에서 적응과 정착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 혼인의 과정

1) 만남과 혼인

면접에 참여한 아랍계 이주자들은 한국인 배우자를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아랍세계, 또는 제 3국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명의 여성 참여자 가운데 F1, F2는 자신의 조국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경우이다. F1의 경우 이라크에 파견된 모건설업체 직원이었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서류상 혼인한 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F2의 경우는 유학생이었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혼인한 후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북한에서 의학을 전공한 후 중국에서 침구학을 전공하였던 M5는 중국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조국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의사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이다. 3명의 여성 참여자 가운데 나머지 한 명인 F3는 F2의 여동생으로 언니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인 남성을 만나 혼인한 사례이다. 면접에 응하진 않았지만 F3의 쌍둥이 여동생 역시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M1, M3는 국비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각각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정착한 경우이다. M1의 배우자는 아랍어를 전공한 사람으로 아랍이슬람문화에 대한 상당한 호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M3의 배우자 역시 오빠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상태였다.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온 M1, M3는 아랍인과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 여성과 만나 문

제없이 혼인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경우이다.

M4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위해 한국으로 온 후 친구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한 경우이다. M4의 경우 역시 사촌형제가 이미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정착해 살고 있어 혼인 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M2는 아랍식당을 운영하는 형의 초청으로 아랍식당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여성과 만나 교제한 후 경우이다. M2는 혼인사유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사회에서 독신자 무슬림 이주자가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형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한 번 식당을 왔어요. 당시 아내의 한 아랍계항공사 스튜어디스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서강대 언어연수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와 아랍어로를 서로 가르쳐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자 아내가 동의했죠. 서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식당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아랍인 무슬림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죠. 누군가 곁에 있어줄 친구나 여자 친구가 필요했어요.”

M6, M7은 매우 특수한 경우로 무슬림으로 태어나 한국에서 와서 혹은 한국에 오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이다. M6은 본국에서 가족들만 아는 가운데 이미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고, M7은 언제 기독교로 개종했는지를 면접에서 밝히지 않았다. M6, M7 모두 교회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으나 현재까지 F-2-1 비자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 아랍계 여성 결혼이주자들은 매우 드물며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본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인 남성들을 조국에서 만나 남편을 따라 이주해 온 경우이다. 남성 결혼이주자의 경우는 유학으로 혹은 취업으로 한국에 와서 비교적 아랍이슬람 문화에 호의적인 한국인 여성을 만나 혼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인 여성과 혼인한 두 사

례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2) 혼인의 조건

이슬람은 혼인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남성들에게는 무슬림 외에도 기독교나 유대교 여성과의 혼인을 허용하는 한편, 여성들에게는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즉 무슬림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금지혼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금지혼의 조건이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의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이주자 F1, F2, F3은 모두 배우자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상태에서 혼인하였다. F2의 배우자는 유학중에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으며, F3의 배우자는 F2의 표현에 따르면 ‘슬람에 진심으로 귀의한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이슬람을 공부하기 위해 아랍국가로 유학을 떠나 있는 상태이다. F-1의 배우자는 아랍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이슬람에 입교하였으며, F1과의 혼인은 주변의 강력한 권유로 전시상황에서 가족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내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녜요. 난 직업도 있었고 가정 형편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일 때문에 서로 많이 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보이질 않아 주변 사람에게 그의 근황을 물었지요. 친구가 남편이 코란과 영어를 배운다고 알려주었어요. 며칠 후 나타난 남편은 코란을 암송하고 영어로 몇 마디 말하기 시작했어요. 난 그때 매우 감동을 받아 울고 말았어요. 남편이 코란을 읽자 주변 사람들이 남편에게 이슬람을 받아들일지냐고 물었고 남편은 날 통해 이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며 이슬람으로 귀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라크인 직원들이 남편을 법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슬람 입문을 위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직원들은 그이가 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직원들은 판사에게 말했죠. 그러자 판사는 내게 ‘당신은 천국에 궁전을 지었어요. 이 사람을 이슬람으로 귀의시켰기 때문이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어떻겠소?’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에 같이 있던 직원들이 증인을 서서 이슬람식 결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성이주자 M1과 M3의 사례는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에 이슬람을 이미 받아들였거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이슬람을 받아들여 이슬람과 아랍의 전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M2의 경우는 배우자가 이슬람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슬람식 혼인식을 한 사례이다.

“당시 아내는 제게 어머니이자 누이이자 연인과 같았어요. 아내는 내가 무슬림인줄 알았고, 결혼식에서 증언을 하고 코란을 읽었어요. 그 날 이후로 아내는 돼지고기와 술을 먹거나 마시지 않지만, 예배를 한다든지 이슬람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는 않아요. 단식도 시도했지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이슬람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은 아내에게 어려운 것 같아요.”

M4의 경우는 배우자가 기독교인으로 M4는 배우자의 종교가 혼인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5의 경우는 아내가 불교도인데 모스크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가짜 무슬림 행세를 하였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는 불교를 믿었어요. 결혼할 때 ‘가짜 무슬림’이었어요. 아내는 지금도 절에 가요. 이슬람법적으로는 물론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제겐 문제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면 종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듯 여성들의 경우에는 혼인의 조건으로서 종교가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기독교는 물론, 불교까지도 혼인의 조건으로 크게 개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족들의 반응

결혼이주자들의 가족 및 한국인 배우자 가족의 반응 가운데 하나는 M2, F3처럼 혼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들이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

다. M2의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부모들이 아직 혼인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은 내 아내가 무슬림이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도 우리 결혼에 반대하고 있어요. 내년쯤 딸을 데리고 요르단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직 아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보여 드리면 생각이 바뀌실 것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데려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F3은 아이를 한명 출산하고 현재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인 남편의 가족이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 가족은 언니가 한국인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언니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족은 아이를 낳고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 시어머니를 한 번 만나보았어요. 아직 시댁 식구들을 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요. 제가 무슬림이고 남편이 이슬람으로 개종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경상남도 진해 출신으로 시댁은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에 반대하는 것예요.”

아랍세계에서 혼인한 M1, F2, 한국에서 혼인한 M3, M4, M6은 모두 가족들이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서 반대를 접은 경우이다. M4는 배우자가 기독교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자 가운데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들끼리 혼인한 경우도 두 건이 있었다. 중국에서 혼인한 M5는 혼인 후에 가족에게 혼인 사실을 알렸고, F1의 경우는 남편과의 혼인이 주변사람들의 권유에 의해 급작한 상황에서 일어나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종교적 혼인을 먼저 한 특수한 경우이다.

이렇듯 면담을 통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아랍계 무슬림 배우자에 대한 커다란 편견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 참여자들은 M1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부색이 흰색에 가까운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아랍계 이주자들의 가족 역시 대체적으로 한국인을 며느리, 혹은 사위로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혼인 후 갈등

1)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경제적 자원, 사회적 지지, 건강, 심리적 자원인 자존감 등 가족 내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자원이론, 성역할태도, 가사분담, 불공평인지 등 성역할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성역할이론, 그리고 과정과 맥락이 되는 의사소통이나 배우자의 지지, 부부권력 등 관계의 질적 측면을 나타내는 관계성이론, 마지막으로 언어적 능숙함,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정체감 등을 포함한 문화에 대한 적응정도를 나타내는 문화적응이론 등이 있다.(김오남 2006, 65)

참여자들이 보인 부부간의 갈등 가운데는 우선 성역할을 둘러싼 갈등을 들 수 있다. M1은 아내와 경제권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로 부부갈등을 겪었으며 결국 이슬람식의 전통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결혼생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여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지만 수단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경제 주도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다가 결국 내가 경제권을 쥐게 되었지요. 내 월급을 아내에게 주지 않아요. 그 대신 아내의 월급에 대해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지요. 아내가 얼마를 버는지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이슬람식 방식입니다. 주거비, 식비 등 집안 생활비는 주로 내가 부담하고 있어요. 아내도 물론 아이들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지요.”

M2 역시 성역할 태도를 둘러싸고 아내와 갈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다 더욱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그는 아랍여성에 비해 남편에게 덜 복종적인 한국인 아내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여성은 아랍여성에 비해 세고 남편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아랍여성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요. 그러나 한국여성은 반항을 하는 편이에요. 이러한 면이 내게 어려운 점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아내에게 뭔가 가져오라고 요구하면 아내는 스스로 가져가라고 말해요. 아랍의 관습에는 남편이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 아내는 순종한다는 것을 아내에게 주시시키고 있어요. 아내는 아랍사회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아내가 요르단에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 누나들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아내도 변하게 될 것예요.”

남성이주자들이 한국인 여성배우자와 성역할을 둘러싼 불만을 가지고 있는 반면, 보다 가부장적인 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여성이주자들은 모두 남편의 가사분담과 성역할 태도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남편은 내가 출산한 이후 2달 동안 요리를 했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특히 이라크에서 돌아온 후 많이 변했어요.”(F2)

특히 F1의 경우에는 가정에만 머물며 남편의 보호를 받는 아랍 여성의 전형인 자신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의해 주도되는 생활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남편과의 갈등은 경제적인 문제뿐이지요. 난 외출을 하지 않아요. 어디를 나갈 때도 남편이 주로 데려다 줘요. 일을 갈 때도 남편이 와서 나를 집으로 데리고 오지요”

“남편이 집세와 돈을 좀 줄뿐이지요. 시장에 가면 물건 값은 남편이 내요. 카드를 만들어 주긴 했지요. 내가 이라크 여자라서 집에서 힘이 없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요.”

문화적인 갈등은 주로 종교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대답하였다. 특히 여성이주자들은 남성이주자에 비해 배 이슬람적 관행의 실

천을 둘러싸고 배우자들과 더 많이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이슬람 개종이 혼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F1의 경우 남편의 음주가 문제이긴 하지만 남편의 종교생활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남편이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셔 무척 싸웠어요. 그러나 요즘은 잘 마시지 않아요. 2-3개월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날 때 가끔 술을 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단식을 못해요. 금요일마다 모스크에도 갔으나 요즘은 바빠서 가지 못해요.”

F2는 남편이 무슬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적 관행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이슬람에서 허용되지 않는 제사의 관행에 대해 비교적 신랄한 입장을 보였다.

“남편은 예배도 드리고 단식도 하고 금요일에도 일이 없으면 모스크에도 가요. 남편과 신혼 초부터 예배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남편이 절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나면 이슬람 관행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남편도 나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요. 이슬람식으로 잡지 않은 고기도 먹지 않아요. 남편이 이라크에 가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매일 이 문제 때문에 싸웠지요. 상사 때문에 마신다고 남편이 늘 말했지요. 이라크에서 돌아와서 개인사업을 하고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친구들과하고도 마시지 않아요. 집에서도 식구들하고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전에 남편은 제사지내고 절을 하는 것이 문화적인 것이지 신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남편에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종교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무슬림이면 절을 해서는 안 돼요. 이슬람은 사상이 아닌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지요.”

F3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남편이 매주 토요일에 모스크에 가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하였다고 말했다. 이슬람에 심취한 한국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슬람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가는 것은 F3이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결

과였다고 한다.

이렇듯 아랍계 남성이주자들은 보다 가부장적인 사회에 익숙한 나머지 한국인 아내들의 성역할 태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반면, 여성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이슬람식 관행의 실천이 어려운 한국사회에서 한국인 남편과 종교적 실천을 둘러싼 문화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간의 갈등은 남성이주자이든 여성이주자든 다른 사람들과 상의 없이 혼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세계에서 특히 남성이 가정 문제나 아내와의 갈등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입’(‘ayb, 훗)으로 간주되고 때문이다.

“가정의 갈등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거나 상의하지 않아요. 아내는 장모나 친구들에게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결혼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정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경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갈등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동향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참아내는 편이지요. 한국인 친구가 있어 이 친구에게 가끔 고민을 상담하지만 동향친구에게는 고민을 절대 상담하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입’이죠”

2) 가족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은 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 혹은 장모와의 관계를 질문하였다. 좋은 경우,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좋게 발전된 경우, 나쁜 경우 등 다양하였다. F1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생전에 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F2 역시 “시어머니는 단순하고 좋은 분이세요. 내가 직장을 다닐 때는 추석이나 설날에 가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이해하세요. 지금은 물론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까 당연히 명절에 시댁에 가지요.”라며 살아계신 시어머니와 아무런 갈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M4의 경우에도 장모가 기도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장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다.

18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M1은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록 아내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언어장벽이 오히려 장모와의 접적인 갈등을 막아주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모와의 갈등이 있지요. 가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장모와 언어장벽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덜 일어나요. 언어장벽이 나를 장모로부터 보호해 주는 보호막과 같다고 할까요. 어떤 경우 장모가 화를 내지만 내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죠... 아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장모가 매주 우리 집을 와서 음식과 청소를 해 줘요. 장모가 음식을 잘 하기 때문에 장모의 음식을 좋아해요. 장인이 아팠을 때 집에서 혼자 지내는 장인이 안쓰러워 아내에게 장인을 집으로 모시자 해서 9일을 같이 보냈어요. 우리 정서에서는 이러한 처지의 장인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깐요.”

아직도 시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F3의 경우 “시댁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오히려 편해요. 이거해라, 저거하지 말아라 하는 간섭하지 않으니까 더 좋아요.”라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성이주자들인 M2와 M4의 경우에는 장모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장모가 아내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것 같아요. 장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아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장모가 시키지 않았냐고 물으면 아내는 부정해요. 그러나 난 아내가 장모의 지시로 그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내는 좋은 여잔데 장모가 문제예요. 가끔 장모가 아내를 불러내어 같이 외출해요. 이것이 신경에 거슬려요. 아내의 이런 행동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M2)
“오프더레코드르 이야기하자면 장모를 좋아하지 않아요. 장모와 갈등이 심해요. 장모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장모와 만나기도 싫어요.”

면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아랍계 여성이주자들은 가부장적 제도가 강하고 가족중심적인 제도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성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처가와 가까이하는 아내 때문에 특히 장모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아랍 이주 무슬림들의 정착: 구조적 동화

Castles과 Miller는 이주자의 사회통합 모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이민자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동화모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지역을 국적 부여기준으로 한 거주지주의가 있다. 둘째는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목표를 두고 있는 다문화주의 유형으로 태어난 곳을 국적 부여기준으로 삼는 출생지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 셋째는 이주자를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 또는 시민권,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차별배제모형으로 부모가 그 나라 국민인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혈통주의가 있다.(김영란 2006, 150) 위의 모형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 번째 차별배제모형에 해당하는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인력의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고용과 영주허용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반면, 단순노동인력에 대해서는 산업연수제도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주민들의 이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반귀화와 국제결혼에 의한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분류하고 있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귀화의 기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영란 2006, 153-15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제도적으로 외국 이주자들이 정착하여 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법적, 제도적으로 이주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

는 방법은 우리 국민과의 혼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결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아랍계 이주자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의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도 체류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여성과의 혼인을 원하고 있다. 한국 이주 이집트인 불법체류자들 가운데는 결혼알선업체를 통한 위장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조희선 2008, 54)

1. 구조적 동화

1)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

면접에 참여한 이주자들의 한국체류기간은 3년에서 18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체류기간과 혼인기간이 10년이 넘는 여성이주자 F1, F2는 각각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F2의 경우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혼인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불법체류인 줄 모르고 있다가 벌금을 내고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한국인과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주자들이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체류자격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이다.

“1998-2004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문제가 되었어요. 남편이 이라크에 가 있었고, 당시 김선일 사건이 일어났어요. 4백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어야 했는데 해당 직원이 제 상황을 알고는 여기 저기 연락을 취해 2백만으로 깎아줬어요. 운이 좋았죠.”

체류기간이 14년째이고 혼인기간이 5년째 되는 M3은 자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남성이주자이다. M3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국적취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및 부품을 아랍세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M3은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얻음으로써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동화한 경우이다.

“난 3년 전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 온지도 오래되고, 한국어도 잘 하고, 아내도 아이도 있고, 사업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얻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시리아 국적은 포기했어요.”

M1의 경우는 한국 체류기간이 18년으로 참여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한국에 체류한 면접참여자이다. M1은 귀화나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F-5(영주비자) 비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이곳에서 비교적 구조적으로 잘 정착해 있는 M1은 아직도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경우이다.

F3은 혼인한지 5년이 지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되나 남편이 사우디로 유학을 떠나 F-2-1 비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인기간이나 한국 체류기간이 비교적 짧은 M2, M4, M5와 같은 남성 이주자들 역시 F-2-1 비자를 유지하고 있다. F-2-1 비자는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 이들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며 구조적으로 정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M6, M7은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여성과 혼인하여 G-1 비자⁵⁾를 얻어 생활하고 있는 경우이다. G-1 비자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아르바이트, 혹은 아랍인 친구의 사업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과 대한민국 법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실태조사

5) 기타비자로 분류되는 G-1비자는 치료나 임금 체불 등에 관한 소송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인하여 국내에 머물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 발급되는 비자형태로서 그러한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비자 형태이다. 체류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부여하며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G-1으로 변경 한 후 체류기간 연장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인과 혼인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국적 동포 국적취득을 위하여 가점수자로 통보된 자에 한해서 G-1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허가기간 : 1년).

를 거쳐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M7은 1년 8개월 전 혼인신고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이다.

“분명하게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고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F-2-1 비자 발급이 너무 오래 걸려 초조해요.”

M6은 본국에서 미혼증명서가 도착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체류자격 변경신청조차 하지 못한 경우이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도 한국정부에서는 우리의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미혼증명서를 이집트에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아직 가족이나 이집트 교회에서 겁이 나서 미혼증명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죠.”

이집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가 증가하고 있고 위장결혼에 대한 우려가 있어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이주자들이 한국여성과 혼인하더라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절차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국에 체류하는 여성결혼이주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영원한 거주’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적을 바로 취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성결혼이주자들의 경우 국적취득의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적취득이나 귀화에 대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6와 M7의 경우처럼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여성과 혼인하여 G-1를 얻은 후 이를 F-2-1 비자로 변경하여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것은 일부 불법이주노동자들에게는 꿈일는지도 모른다.

2) 학력과 직업

한국인과 혼인한 혼인이주자들은 M7과 F3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을 졸

업한 높은 학력의 소유자들이다. 한국인 배우자들 역시 M7과 M4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모두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1은 모국에서 대학 강사를 역임한 엘리트에 속하며 한국인 배우자 역시 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이다. M1은 한국에서 대사관, 어학교수, 번역회사 등의 직종에 근무한 바 있다. M1은 배우자와 아랍어로 대화하고, 아랍인들과 혹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오랜 체류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깊숙이 동화되거나 적응되었다고 볼 수 없다. F1 역시 한국사회에 오랜 동안 체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교수, 혹은 아랍어 번역 등 한국인과 거의 교류가 없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F3의 경우 현재는 임신중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혼인 이후 1년간 아랍계 대사관에 근무한 바 있다.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한 M6와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M7의 경우 G-1 비자의 소지로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각각 아랍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 혹은 아랍인 친구의 사업을 도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국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내의 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M4는 중고자동차 부품사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현재는 인천에서 아랍식당을 개업하였다. 회계학을 전공한 M2 역시 형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아랍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주로 한국인과 아랍인 고객으로 상대하고 있지만 근무 현장에서는 아랍인들이나 인도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공학을 전공한 한국국적 취득자인 M3은 베이커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합작한 사업체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정도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정착한 경우이다. M3의 경우 사업파트너도 한국인이고 직원들도 한국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는 자신이 한국과 시리아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중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시리아로 수출하고 있어요. 대략 4-5백 명 정도의 시리아인들이 한국과 시리아를 오고가며 무역에 종사하고 있어요. 내가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요.”

여성참여자 가운데는 F2가 남성참여자 가운데는 M5가 가장 성공적으로 한국사회 구조에 편입한 경우이다. F2는 현재 새로 아이가 생겨 영어강사로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 둔 상태이나, 지금도 동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M5는 북한에서 의학을 전공한 후 본국에서 의사생활을 한 바 있는 엘리트이다. 현재 의과대학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그는 실험실에 근무하며 주말에는 학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 처음에는 장학금을 안 받고 왔어요. 1학기 돈 냈어요. 2학기부터 장학금 받았어요. 입학하는 데 아주 쉬어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없지만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의사자격증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로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인 천 송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개원하면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고학력 소지자들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사회의 정착이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아랍대사관, 아랍식당, 아랍세계와의 무역 등 아랍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으나 한국인들과 경쟁하는 직종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이주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생활조건

면접에 참여한 여성이주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F1은 남편의 실직으로 한 때 산속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현재 월세 집 보증금도 자신이 벌어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F2는 남편이 직장을 가졌을 때는 3-4백 정도 벌고 자신도 350만 원 정도를 벌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현재는 월세로 살고 있다. 사업 실패 후 남편은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이다. F3의 경우 혼인 당시 남편이 대기업에 다녔지만 혼인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

을 떠나 있어 전에 벌어들인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다. 4년 정도는 저축한 돈으로 버티겠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며 미래를 걱정하였다.

M1은 월 3천불 정도를 벌고 아내도 직장이 있어 경제적인 문제는 없는 경우이다. M3도 베이커리를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자신의 사업체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경우이다. M6은 아내가 180만원,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50만 원 정도를 버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M7 역시 아내가 일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는 지낼 만 하다고 응답하였다. M5의 경우도 아내가 일을 하지 않지만 자신이 3백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생활조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인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다 1년 전에 식당을 개업한 M4의 경우에는 요즘의 경제위기가 이주자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너무 피곤해요. 싫어요. 식당 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재료값이 더 올라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손님이 줄진 않았으나 재료 값 올라갔어요. 모두 수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천사람하고 서울사람하고 달라요. 9천원 8천원 보고 비싸서 그냥 손님이 나가요. 요르단 가고 싶어요. 진짜 피곤해요. 생활이 너무 똑같아요. 루틴해요. 식당이 자동차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너무 골치 아파요. 빛이 있어요. 식당하면서 빛을 쬐서 아직 못 잤어요.”

4) 거주지 및 한국인들과의 관계망

면접에 참여한 10명 가운데 6명이 이태원에 살고 있거나, 이태원에 살았던 경험이 있거나, 이태원에 직장이 있거나, 이태원 근처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1은 이태원을 거주지로 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태원에는 모스크가 있잖아요. 금요일에 예배에 참석하기도 좋지요. 이태원에는 아랍사람들, 조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이태원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M2, M4, F2는 각각 아내의 친정집 근처에, 혹은 시댁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 이태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M2는 “아내가 작년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아내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이사했어요. 장모가 아래층에 살고 계세요”고 했으며, F2는 “이태원 가까워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시댁 근처에 살고 싶어 해서 이곳(금정)에 거주하고 있어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한국 이주 아랍인들이 이태원 부근을 선호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한국인들과의 관계망 형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태원에 거주하는 M1은 한국체류기간이 매우 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이웃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F1은 한국사회와 거의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경우이다. 한국인들과는 물론 아랍인들과의 관계망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한국사회의 적응이 매우 어려운 사례이다.

“내 문제를 상담할 친구가 없어요. 한국 친구도 아랍 친구도 없어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난 보통 외출도 하지 않아요. 모스크에 가도 주로 모로코나 이집트에서 온 여자들 많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말이 새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외출하거나 친구를 사귀지 않아요.”

한국에 거주 기간이 긴 M1, 한국인들과 섞이는 직장에서 일하는 M3, M5의 경우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한국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M1의 경우 가정문제나 경제문제의 경우 고국의 친구들과는 상담할 수 없으나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국 친구들에게 가정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입’이 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M3와 M5는 아랍인 친구들이 없으며 한국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주 여성 가운데 F1과는 달리 F2, F3은 한국인들과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주지가 이태원이거나 혹은 아랍인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주자들은 보통 한국인과의 관계망을 거의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태원 이외의 거주지에 살면서 한국인들과 함께 근무하는 직장을 가진 이주자들의 경우 직장 동료들을 통해 한국인과 돈독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착의 어려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이주자이든 남성이주자이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고국의 친구들보다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상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자녀의 교육

면접에 참여한 이주자들은 대부분 1명이나 2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주자들의 경우 F1이 3명, F2가 2명, F3은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하여 2명인 반면, 반면 남성이주자들은 최근에 혼인하여 아이가 없는 M6과 M7, 2명의 아들을 가진 M1을 제외하고 M2, M3, M4, M5가 모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M4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들어 한 명의 자녀로 만족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아이들 더 낳고 싶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이들 더 낳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불가능해요. 아이 교육이 한국에서는 너무 어려워요.”(M5).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이주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아랍식 이름과 한국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다. 한국식 이름은 주로 학교에서 부르고 집안에서는 아랍식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자녀들의 국적은 모두 한국으로 되어 있으나, M1의 경우 두 아들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녀들이 아랍인의 정체성을 지켜주길 희망하고 있었다.

“아들 둘이 모두 한국과 수단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12세가 되

면 국적을 선택해야 해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아들들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으나 마음속에는 수단 국적을 선택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자녀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아랍어에도 능통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들이 아랍어를 익힐 수 있도록 자녀들과 아랍어로 소통하고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자녀들에게 이슬람 종교는 물론 아랍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딸이 아직 어리지만 딸을 무슬림으로 키우고 싶어요. 새벽예배를 항상 딸 앞에서 드리고 있어요. 딸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나를 쳐다봐요. 이렇게 하면 딸은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해요.”(M2)

“딸아이를 물론 무슬림으로 키우길 원하지요. 보수적인 이슬람식 방식으로 키우고 싶어요.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한국아이로 커가지만 문화만큼은 이슬람 문화를 교육시키고 싶어요.”(M4)

그러나 M3의 경우 자녀들에게 아랍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겠지만 보편적인 사고를 하는 ‘문화인’으로 키우고 싶으며, 이슬람에 집착한 교육은 시키고 싶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M5 역시 한국에서 사는 한 한국식 교육이 필요하며 딸에게 한국말로만 소통한다고 응답하였다. M3과 M5는 한국사회 구조에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우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남성이주자들에 비해 여성이주자들은 자녀 교육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의 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2는 한국생활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의 교육문제를 꼽았다.

“딸아이에게 아랍어를 어디서 공부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랍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초등학교가 끝나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다른 국

가에서 공부시키고 싶어요. 마르얌(딸)이 히잡을 써야 할 때인데 문제예요.”

F3는 “저는 솔직히 애들 교육 때문에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라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F1의 세 아들은 앞으로 이주자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예측하게 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은 한국인이기보다 이라크인에 가까워요.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큰 아들은 사람들이 놀리는 것에 대해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어요. 한국기업에서 큰 아들은 일할 수 없어요. 지금 대사관에서 일해요. 둘째 아들 역시 이슬람식 교육을 받아 보수적 이에요. 막내아들은 시리아에서 유학 중이에요. 유학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자살할 것이라 해서 유학을 보냈어요.”

F2의 초등학교 6학년 된 딸과의 면접은 아랍계 이주자들이, 특히 여성이주자들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난 100%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생긴 것도 좀 달라요. 놀리는 것 있어요. 아프리카라고 하면 아프리카 가난하다. 거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하고 싸우게 되면 애들이 하는 첫 번째 나쁜 말 ‘너는 거지면서 왜 다니냐’라고 해요. 모로코에 살고 싶어요. 말하는 것 좀 불편하긴 하지만 모로코 좋아요. 할머니, 사촌들하고 말하는 것 문제없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 너무 신경을 써요. 학교에서 놀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애들이 손가락질해요. 모로코에선 그런 적 없어요. 모로코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랍계 이주자들이 우리사회 속에 정착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교육과 이주 2세대의 한국사회 속에서의 위상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의 구조 속에 정착하려는 노력으로 많은 동화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이주자들의 자녀들은 한국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동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사회와의 갈등

1) 차별 경험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문화는 외국인에게 배타적, 차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끼리 문화의 배타주의,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육체노동의 천시와 적당주의,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의사소통문제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정진경 & 양계민 2004, 126) 이러한 한국사회 속에서 아랍계 이주 무슬림들에게는 어떠한 차별의 경험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 속에서 살면서 차별의 경험이 없이 잘 적응해 살아가는 경우는 두 명의 참여자가 해당되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M5는 자신이 한국사회 속에서 차별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료들이 잘 대해 줘요. 학기 끝나면 회식을 하는 데 동료들이 삼겹살을 먹으면서 내게는 닭고기나 쇠고기를 시켜줘요. 날 잘 이해해요. 난 중국에 3년을 사는 동안 잘 동화되지 못했어요. 한국이 훨씬 좋아요. 한국 국민은 가깝게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이 매우 겸손해요. 교수라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요. 나의 지도교수도 날 존중하고 잘 대해 줘요.”

F2의 딸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정착 F2는 이웃과 직장에서 별다른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옛날 단지에서 살 때는 앞집과 매우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문을 열어 놓고 식구처럼 지냈어요. 지금도 이웃들과 잘 지내요. 전에 학교에 나갈 때도 동료들이 제게 매우 잘 대해 주었어요. 내가 영어 원어민이 아닌데

도 날 존중해 주었지요.”

M6의 경우 차별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어떤 한국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미국사람이냐’ ‘아니다’고 대답하면 아래로 봐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이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피부색’을 봐요. 난 피부가 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내 다른 아랍 친구들은 얼굴이 검을 경우 더 멸시를 당해요.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무시하는 듯 하지만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는 잘 대해줘요.”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참여자들 가운데 M2의 경우는 자신과 혼인한 아내를 이웃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딸아이의 존재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아내를 이웃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숙한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 나서 달라졌어요. 딸이 눈이 크고 예쁘니까 이웃들이 관심이 많아졌고 딸아이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인천에 살고 있는 M4의 경우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특히 피부가 어두운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이 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보면 무조건 노동자로 치부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응답을 보였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인들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low quality’로 바라보고 하얀 피부와 노란 머리는 ‘high quality’로 생각해요.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철을 타고 앉으면 옆에 앉아 있는 여자가 다른 자리로 도망가기도 하지요. 이런 일은 내게도 다반사로 일어나요. 서울은 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천에서 택시를 타면 ‘회사 어딴거? 일 어딴

어?’라고 택시 기사가 물어요. 그러나 서울에서는 ‘관광객이세요? 대사관에서 근무하세요?’라고 물어요. 인천의 문화는 모든 사람을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장이 어디냐?’라고 물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돌아와요. 내 머리가 노랗다면 ‘어디서 가르치냐’라고 물었을 것예요”

이렇듯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면접참여자들은 차별을 경험하였거나 차별에 대한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면접참여자의 경우 차별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랍계 사람들과의 관계망 형성

이주자들의 아랍계 사람들과의 관계망 형성은 한국인들과의 관계망 형성과 대비될 수 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M5의 경우 한국에 온 이후 이태원은 단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동향 사람이나 아랍인들과 거의 친교가 없고, 또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사회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한 M3의 경우도 동향친구들이나 아랍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두 사람 모두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거나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F1의 경우는 한국 사람들과는 물론 다른 아랍사람들과도 거의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M1의 경우 한국거주 기간이 가장 김에도 불구하고 주로 동향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M1의 아내 역시 남편을 따라 남편의 동향 사람들과 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아랍식당에서 일하는 서울 거주 M2 역시 주로 식당에서 일하는 아랍계 친구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한국인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는 없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요. 이라

크, 팔레스타인에서 온 친구들과 형이 식당에서 함께 일해요. 서로가 너무 잘 아는 사이지요. 휴일도 함께 지내요.”

인천에서 아랍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M4의 경우도 한국인들보다는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아랍계 친구들이나 식당을 방문하는 아랍인들과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F2의 경우도 요즘은 아이가 하나 더 생겨 외출하기 어렵지만 전에는 이태원에서 동향에서 온 친구들을 매주 만났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 이주 아랍계 무슬림은 주로 이태원을 중심으로 동향친구, 혹은 아랍계 친구들과 관계망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스크가 있는 이태원은 이들의 거주지이자, 예배를 볼 수 있는 장소이자, 친구들을 만나 주변 아랍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사교의 공간이기도 하다. 아랍계 이주자들끼리의 관계망은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동향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망 대신에 한국인들과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있는 M3, M5의 경우에는 한국사회로의 정착의지가 강하고 비교적 한국사회에 구조적으로 잘 편입되어 살아가고 있다. Kalmijn은 다양한 종교 그룹의 일원들이 종교에 덜 헌신할수록 그들 간의 사회적인 경계가 점차적으로 힘을 잃는 경향이 있다고 관찰하였다.(O'Leary 2001, 648-649) M3, M5가 이슬람의 관행을 지키지 않고 종교에 커다란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IV. 아랍 이주 무슬림들의 문화적응

Berry는 문화적응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두 가지 차원이란 첫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

(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와 접촉을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가 된다.(박주희 & 정진경 2007, 399)

그러나 Berry 이론에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하나의 특정한 전략을 선택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전략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람들이 발달과정에서 전략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평생 동안 하나의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다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이나 집단이 선호한 전략을 주류사회에서 반드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화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통합전략을 선택한 사람은 매우 제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진경 & 양계민 2004, 122-123)

Berry 이론의 한계가 지적되었듯이 그의 이론에 따라 아랍계 이주자들의 문화적응 전략을 정확하게 구별 짓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주자들의 사용언어와 음식, 종교·문화적 정체성의 정도에 따라 참여자들의 문화적응 전략을 ‘동화’, ‘통합’, ‘분리’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모국의 문화와 접촉을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한국의 문화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주변화’ 적응전략은 이번 참여자 가운데 는 발견할 수 없었다.

1. 동화

참여자들 가운데 동화 전략을 사용하는 가장 가까운 예는 M5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그는 아내와는 물론 딸아이와도 한국어를 사용한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짧아도 북한에서 6년간 의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에 거의 문제가 없다.

“아이와는 한국말로 이야기해요. 아랍어로는 하지 않아요. 아랍어를 가르치고 싶지만 한국에 사는 한 한국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료

들과 한국어로 이야기 하는 데 문제없어요. 한국어는 북한에서 공부했어요. 억양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야기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경제, 정치, 의학 모든 주제를 한국어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난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한국어를 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바로 아랍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이라고 생각해요. 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나 오해가 없어요.”

M5의 경우 한국음식을 먹는 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아랍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한국음식을 매우 즐긴다. 두 달에 세 번 정도 동료들과 술을 마시기도 한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거리낌도 없다. 그러나 M5도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돼지고기 음식문화로 꼽았다. M5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문화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돼지고기가 문제예요. 반찬 가운데 돼지고기가 나오면 안 먹어요. 집에서 아내는 돼지고기를 요리하지 않아요. 아내도 어려서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문제가 정말 피곤해요. 종교적인 것은 아니예요. 단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는 많은 무슬림들이 그래요. 선생님은 원숭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돼지고기는 병을 가져오는 더러운 것이라고 배웠어요. 종교적인 거 아니예요. 문화적인 거예요.”

M5는 이슬람의 종교 실천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또한 아내의 종교 불교에 대해서도 그리고 한국식 명절에 대해서도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너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단식도 안 해요. 솔직히 혼자 단식하는 것은 여기서 너무 어려워요. 아내와 함께 절에도 가요. 향을 피우나 절은 안 해

요. 절에 가면 경치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명절은 설날, 크리스마스 등 한국인들이 쇠는 명절은 모두 쇠요. 이슬람 명절은 쇠지 않아요.”

M5는 한국의 국민과 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소유하고 있다. M5의 경우 한국어에 익숙하고 젊은 시절 북한에서 유학을 한 것이 한국 사회로의 동화에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그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즉 사회의 상당한 엘리트 계층과 접촉하고 있는 점도 그가 한국사회에서 동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M3도 언어, 음식, 문화 등에서 한국에 상당히 동화된 경우이다.

“난 한국어를 배웠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1995년 한국정부 장학금으로 한국어 연수를 했어요. 한국을 먼저 알고 사업을 시작했지요.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고 한국 노래도 잘 불러요. 부인하고 한국말로만 대화하지요.”

M3 역시 술은 가끔 마시지만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며 80%정도는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M3에게도 돼지고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 종교생활과 관련하여 그는 이슬람의 관행을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M3의 경우도 M5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으로 한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이다.

M6는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으로 한국에서 목사 자격증을 얻어 아랍계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의 일을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다. 아직 한국에 입국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집트에서 경찰에 소환되어 고문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동화이지를 가지고 있고 고유의 종교 가치나 문화를 거부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동화정도가 높은 M3나 M5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고, M5의 경우 아내와 함께 절에 가면서도 불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반해, M6의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절을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난 돼지고기, 개고기도 먹어요. 내 생일에 장모님이 개고기를 사주셨어요. 어머니에게 절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없어요.”

2. 통합

면접 참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합의 유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합의 유형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자기 고유의 문화에 대한 수용여부나 혹은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M4의 경우 한국말로 면접의 많은 부분을 진행할 정도로 한국어 구사력이 높다. 그는 아내와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아이와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섞어 사용한다고 대답하였다. 한국음식 가운데 몇 가지는 먹을 수 있으나 아랍음식을 선호하고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일부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아내는 내가 한국 음식을 먹기를 원하나 난 한국음식을 먹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김치를 먹지 못해요. 아내는 돼지고기를 집안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요. 아내가 한국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이 문제예요. 김치 냄새는 참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아내가 아랍음식을 잘 해요.”

M4는 기독교인인 아내의 종교와 아내 친정의 문화를 존중하는 한편, 이슬람의 종교 관행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 기독교인 어머니에게서 자라지만 딸의 경우 이슬람식 문화를 교육시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M1과 F2는 배우자들이 아랍어와 이슬람문화에 익숙한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배우자와 대화할 때 아랍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한국에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배웠어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이 일이 너무

많아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도 한국어로 이야기할 경우 우리 아이들이 아랍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랍어로 이야기해요. 부인과도 아랍어로 말하지요.”(M1)

“딸들이 아랍어를 익힐 수 있도록 아랍어로 말해요. 남편이 한국어로 말하지 않고 아랍어로 말하기 때문에 내 한국어 실력이 늘질 않아요.”(F2)

M1, F2의 배우자가 모두 아랍세계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한국음식과 아랍음식을 함께 먹고 스스로도 한국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M1, F2 역시도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동화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과는 달리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종교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집에서는 아랍음식과 한국음식을 요리해요. 고기를 이태원에서 사야 하는 것이 문제죠. 한 달에 한 번씩 이태원에 가서 고기를 사서 냉장고에 보관해요. 갈비찜, 닭도리탕, 김치찌개... 한국요리 다해요.(F2)

두 경우 모두 이슬람식 명절과 한국의 명절을 기념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의 명절이 되면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지만 제사 문화에 대해, 그리고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이슬람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슬람의 실천과 관련하여 M1, F2 모두 매일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태원에 거주하는 M1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에 모스크에 간다고 응답하였다. F2의 경우에는 매주 모스크에 가지 않지만 이슬람 명절에는 반드시 딸을 데리고 모스크를 방문하여 모스크 근처의 식당에 들려 딸과 함께 아랍음식을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M1, F2는 Berry가 분류한 통합의 유형에 가장 가까운 경우라 할 수 있다. 주류문화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유의 종교나 문화적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M1, F2의 경우 모두 배우자의

가족들이 이슬람적 관행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1은 그 예로 처가를 방문할 경우 예배시간이 되면 장모가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카펫을 준비해 준다고 언급하였다. F2의 경우에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술을 권한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술을 권하는 가족들을 호되게 야단을 쳐서 더 이상 남편의 가족이 술을 권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일화를 언급하였다.

한편, M2의 경우는 고유의 종교와 가치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우선 아내와는 영어를 사용하고 딸과는 아랍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과 배우고 싶은 의지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인은 똑똑한 국민이에요. 한강의 기적이 온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매우 폐쇄적인 것 같아요. 한국어를 알면 이들과 어울리고 이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같아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강대학교 어학원에서 레벨 2를 마쳤어요. 매일 아침 서강대에서 레벨 3를 공부해요.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서강대에서 주말만 빼고 매일 수업을 들어요.”

음식의 경우 M2는 한국음식을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내가 아랍음식을 좋아해요. 나는 한국음식이 맛은 없지만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상대방의 음식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랍음식은 맛있지만 건강식은 아니죠. 점심은 식당에서 먹고 저녁은 아내가 한국음식을 요리해줘요. 아내가 아랍음식을 원하면 식당에서 가져다줘요.”

아내가 혼인을 할 때 이슬람식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종교관행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처가가 이슬람식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M2는 큰 불만을 토로하였다.

“아내의 가족은 아내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이죠. 아내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먹기를 원해요.”

또한 아내가 부모에게 세배를 하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장모와 장인의 생신, 혹은 명절 때 아내가 부모에게 절을 하거나 조상에게 절을 해요. 난 이것이 싫어요. 이것은 동반신을 모시는 거니까요. 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절은 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항상 이러한 말을 하지만 아내는 이해하지 못해요. 아내에게 심한 말을 했어요. 이러 식으로 하면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아내는 내 말이 두려워 내 앞에서는 절을 하지 않아요.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M2는 고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더 신실한 무슬림이 된 것 같다고 고백하였다. M2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한국음식에 대해서는 열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문화적응 전략은 분리의 유형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F3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편으로 남편과는 한국어로 아이와는 아랍어로 소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3의 경우는 한국인 배우자 남편이 오히려 이슬람적 가치에 더욱 전도되어 부인에게 히잡을 쓰라고 권유한 특수한 사례이다. F3은 여성 참여자 가운데 유일하게 히잡을 착용하고 있다. 시댁과의 관계가 없어 이슬람 식 명절만 기념하고 있으나 한국인과 혼인한 언니 집에서 4년을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문화에 매우 익숙하고 한국의 문화가 아랍문화와 유사하다고 느끼고 있다.

3. 분리

면담 참여자 가운데 한국어도 한국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하고 고유의 아랍-이슬람 문화만을 고수하면서 그것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으려는 사례가 F1

의 경우이다. 한국 남성과 혼인한 지 25년이 되었고 한국에서의 체류기간도 12년 정도 되지만 F1은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한다. 남편과는 주로 영어로 소통을 하고 아이들과는 아랍어로 소통한다. 아랍어를 가르치거나 번역하는 일을 하였지만 모두 아랍어로 소통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했기 때문에 F1은 한국어를 배우거나 말할 기회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한국의 명절을 기념하였으나 제사에서 절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어머니 사망 이후에는 이슬람식 명절만을 기념하고 모스크에는 나가지 않지만 이슬람적 관행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면접참여자들이 ‘통합’의 문화적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통합의 경우도 사례마다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종류가 다르고 고유문화에 대한 유지의 정도와 입장도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통합의 전략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거나 구사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음식문화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편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고기 문화에 대해서는 참여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통합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이슬람적 관행을 생활 속에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전략은 동화를 들 수 있다. 동화 전략을 구사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돼지고기를 제외하고 술을 비롯한 한국의 음식문화에 아주 관대하다. 이들은 예배나 단식 등의 이슬람적 관행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어떤 경우 한국의 불교문화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분리의 전략은 1명의 여성참여자가 해당되며 이 경우도 돼지고기문화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음식문화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접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져 연령에 따른 문화적응 전략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지만, 결국 젊은 사람들일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용이할수록 동화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정진경 & 양계민, 2004. 120-121) 사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될 수 있었다.

V. 결 론

아랍계 남성의 ‘노동 이주’의 경우 이집트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들은 주로 관광 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어 불법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의 정착이 쉽지 않다. 이러한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여성과의 혼인을 통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고자 한다. 타 집단에서 많이 발견되는 여성의 ‘혼인 이주’의 경우 외국인이나 타 종교 사람들과의 혼인을 터부시 하는 이슬람문화의 특성상 아랍계 여성들의 ‘혼인 이주’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 혼인 이주한 아랍계 여성들 가운데 모로코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모로코에서 한국남성과 혼인한 모로코 여성이 한국에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여형제들을 불러들여 다른 한국남성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아랍계 무슬림들의 혼인 이주는 아주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혼인이주를 해 온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인들과 경쟁하는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랍인을 대상으로 한, 혹은 아랍세계와 관련된 직장에서 한국사회의 구조에 부분적으로 편입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랍계 이주 1세대가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제 2세대가 우리사회의 구조 속에 성공적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문화적응과 관련해서는 음식문화나 언어문화 등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문화적응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유의 문화적, 종교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면접참여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사회에 문화적으로도 동화하려는 태도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주류사회가 이주자들을 수용할 것인가 혹은 차별할 것인가의 정도는 이주자의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도 혹은 방해할 수도 있다.(Coles 2006, 234) 최근의 문화적응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일방적인 동화가 아닌 쌍방향적인 문화적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호문화주의

(interculturalism)에 입각하여 자기변화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재규정하고 타인을 변화시키는 태도, 즉 열린 주체와 열린 유대에 기초하여 삶을 구성하는 태도를 말하는 상호문화주의가 필요하다(김혜숙 2007, 217)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인을 동화시키려고,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교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도 우리의 문화를 배워야 해요”라는 한 면접참여자의 말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이주 무슬림, 이주 아랍 무슬림, 문화적응, 국제결혼, 이슬람, 혼인동화, 구조적 동화

참 고 문 헌

- 김보라(2007). “국제결혼 이민 실태와 이민자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경기도 남양주시의 사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 45집 1호, 143-189.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제 18집 3호, 63-106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7,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주 외(1997). “국내 거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40호, 105-139.
- 김현희(2007).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민족연구, 31권, 6-51.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제 42집 2호, 36-71.
- 박주희, 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Vol. 12, No. 4, 395-432.
- 유철인(1998).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제 7권 1호, 186-198.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 28권 제 1호, 73-106.
- 이희영(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 39집 3호, 120-148.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Vol. 23, No.1, 101-136
- 조성원(2000). “외국인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 및 재생산”,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조희선(2008).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29-1호, 31-66.

차옥승(2008). “국제혼인 이주여성 피해실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담론 201, 11(2), 139-169.

최영신(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 연구, 2(2), 1-22.

최종렬, 최인영(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방법론적·윤리적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 4권, 147-205.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2-2007

Bugelski, B.R.(1961). "Assimilation Through Intermarriage", *Social Forces*, Vol. 40, No.2, 148-153

Chun, Kelvin M(2003). Pamela Balls Organista & Gerardo Marin (eds.). *Accultur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les, Roberta(2006). *Race and Famil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DiCicco-Bloom, Barbara & Benjamin F.(2006). Crabtree, "The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Medical Education*, Vol. 40, 314-321.

Dribe, Martin & Christer Lundh(2008). "Intermarriage and Immigrant Integration in Sweden", *Acta Sociologica*, Vol. 51, 329-354

Hwang, Sean-Shong(1997). Rogelio Saenz & Benigno E. Aquirre, "Structural and Assimilationist Explanations of Asian American Inter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9, No. 3, 758-772.

Kulczycki, Andrzej & Arun Peter Lobo(2002). "Patterns, Determinants,

- and Implications of Intermarriage among Arab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4, No.1, 202-210.
- Marcson, Simon(1951). "A Theory of Intermarriage and Assimilation", *Social Forces*, Vol. 29, No.1, 75-78.
- McFadden, John(2001). "Intercultural Marriage and Family: Beyond the Racial Divide", *The Family Journal*, Vol. 9, 39-42.
- Morgan, Charlie(2009). *Intermarriage Across Race and Ethnicity Among Immigrants*, USA: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 O'Leary, Richard & Fjalar Finnäs(2002). "Education, Social Integration and Minority-majority Group Intermarriage", *Sociology*, Vol. 36, 235-254.
- O'Leary, Richard(2001). "Modernization and religious intermarriage in the Republic of Ireland",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No. 52 Issue No.4, 647-665
- Rosenfeld, Michael J.(2002). "Measures of Assimilation in the Marriage Market: Mexican Americans 1970-199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4, No.1, 152-162.
- Sam, David L. & John W. Berry(2006).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희선

소 속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이메일 chohs@mju.ac.kr

논문접수일 2009년 5월 22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09년 6월 13일